2026. 3. 23.

금융 Weekly Insight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우려 – 각 업권별 투자시 고려사항 점검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3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지난 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되었으나, KOSPI의 변동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은행, 증권, 보험업종 모두 각각 5.0%, 4.7%, 5.0%의 반등을 시현.
- 최근 고유가, 고환율이 매크로 우려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매크로 환경 변화는 금융사 펀더멘털에도 부담. 다만, 막연한 우려보다는 각 업권별 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Valuation 고려 후 차별화된 투자 접근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
- 1) 증권업종은 매크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만큼 운용 수익 등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2) 은행은 지난 수년간의 디레버리징으로 실적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Valuation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관점에서 기회를 살피는 것이 합리적 접근이라 판단.

금융 Overview

- 은행 – 매크로 환경 악화는 부담 요인이지만, 영향 및 Downside는 제한적 관점 접근이 보다 유효: 은행주는 5.0% 반등에 성공. 다만, 고유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매크로 환경의 악화에 따른 은행 실적 부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이는 매크로 회복 속도의 악화와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차질 가능성, 그리고 한계 차주 중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기인. 그러나, 은행들의 실제 펀더멘털 약화 부담은 이러한 우려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지난 3년여간 은행들이 부동산 금융 및 한계 차주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을 이어온 만큼, 자산건전성 악화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 즉, 은행주 26E PBR이 0.82배까지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 올해 예상 ROE 및 주주환원율을 감안 시 추가적인 downside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기회를 살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 증권 – 강력한 실적, 매크로 변동성은 경계 필요: 증권 업종 주가는 4.7% 상승하며 KOSPI와 유사한 흐름을 시현. 거래대금 급증(q-q 약 +100%) 및 정부 주도 우호적인 증시 정책 모멘텀이 지속됨에 따라 기저 투자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 다만, 1) 주가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2) Valuation 멀티플 부담이 존재하는 일부 종목 또한 관찰되면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유가 급등 or 환율 급등)에서는 섹터 심리가 급격히 반전될 가능성 또한 경계해야. 실제로 증권사 실적 중 운용 수익 비중이 25년 기준 50% 이상을 차지한 점에서, 매크로 변동성 확대 시, 실적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 또한 필요.
- 보험 – 매크로 방향성에는 중립적: 보험 업종은 w-w 5.0% 상승하며, KOSPI와 유사한 흐름 시현. 보험 업종의 경우, 금리 상승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긍정적이며, 적극적 환헤지(100% 원칙이 대다수)로 환율 변동성에 따른 이익 충격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매크로 변동성 확대될 경우 방어주 관점이 부각될 수 있음. 물론, 최근의 주가 상승에는 보유 자사주 소각 가능성,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계열사 지분 가치 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증시 전체 조정 구간에서는 보험 업종 또한 주가 조정이 불가피 하겠으나, 상대적인 Valuation 부담은 가장 덜한 금융업종이라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15) 올해 들어 4대 은행 ETF 판매액 19조원으로 작년 10배 상회** - 26년 들어 은행에서 판매한 ETF는 3월 11일 기준 18.8조원으로 작년 1~3월 판매액 1.8조원의 10배를 상회. 특히, 1월과 2월에는 각각 7.2조원 및 8.1조원이 판매. - 은행을 통해 ETF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탁 계약을 맺고, 이후 은행이 고객 돈을 증권사에 재투자하는 방식. 이 과정에서 고객은 신탁자금의 1%가량을 은행에 선취 수수료로 지불하는데, 이는 증권사 앱대비 수수료 부담이 높음. - 은행에서 ETF가 많이 팔리는 이유로는 고령층 대상 공격적 마케팅 결과라고 해당 기사는 언급. 특히, 증권사 앱이 친숙하지 않고 FOMO를 느끼되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고령층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보도. - 더 나아가 은행들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시 ETF를 팔고 이익을 실현한다고 홍보. 하지만, ETF 상품 특성 상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재차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음을 우려.	**ETF 급성장 확인:** 과거와 달리 금번 KOSPI 상승에서 두드러진 점은 ETF의 가파른 성장세. **ETF도 펀드 – 상품에 따라 위험도 상이:** 하지만 ETF도 펀드로써 상품에 따라 원금 손실 리스크가 상이하다는 점은 인지 필요. 즉, 언론 보도에서와 같이 은행이 신탁을 통해 ETF 상품을 판매할 경우,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재차 훼손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 **은행들의 자산관리 영업 – 단순 금융 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자산관리가 되어야:** 한국의 금융사들은 이미 오랜 기간 자산관리 영업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은 엄밀한 의미의 자산관리이기보다는 금융상품 판매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 과거 라임펀드 사태부터 ELS, ELD 등의 불완전 판매 사태 속에서 소비자와 금융사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를 방증. 결국 필요한 것은 고객과 금융사가 같이 성장하는 자산관리 영업의 정착이라 판단하는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구현하는 금융사가 시장을 선점,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15) 환율 1,500원 뉴노멀 되나 - 원/달러 환율은 연이어 1,500원을 향해 상승 세를 시현. 특히, 3월 14일까지 3월 들어 원화 가치는 3.8% 하락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낙폭이 가장 큰 수준.	**고환율에 따른 단기 실적 부담 불가피 전망:**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가운데, 분기 말 환율에 따라 은행들은 1) 외화환산손익과 2) CET-1비율 영향을 받게 됨.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각각 10원/달러 당 80~100억원 및 60~70억원가량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CET-1 비율은 은행별로 1.0~2.5bp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 **실적 영향은 제한적- 환율 정상화 과정에서 환입 기대:** 은행들의 실적 영향은 제한적 판단. 외화환산손실의 경우 회계상의 이슈이고, CET-1 비율 영향은 RWA 관리 및 이익 창출을 통해 일정 수준 방어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향후 환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외화환산이익으로 전환됨은 물론 CET-1 비율도 개선 효과가 발생. **단기 영향보다는 중장기 매크로 변화 영향에 보다 초점 필요:**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당초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 가령, 고환율 및 고유가 지속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이는 재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거나, 이자부담 증가 및 경기 둔화에 따른 건전성 개선 속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과거와 다르다 – 연이은 디레버리징 결과 우려대비 펀더멘털 영향 작을 전망:** 다만, 지난 수년간 은행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거액의 충당금 부담 우려는 낮다고 판단. 이는 은행들이 23년부터 부동산 금융 및 SOHO대출 비중 축소 등 적극적인 디레버리징을 추진했던 만큼, 잠재 부실 가능 자산이 과거대비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 즉, 이는 펀더멘털 영향은 우려대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16) 우리금융, 5위 생보사 목표 동양생명과 ABL 통합 추진** -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순차적으로 IT, 전략, 재무 통합 사업 RFP를 관련 업계에 발송 예정인 것으로 보도. 우리금융에서 내부적으로 책정한 통합 사업 비용은 총 3천억원으로 이는 KB생명과 푸르덴셜 생명 통합 당시보다 500억원가량 더 높은 수준. 이는 IFRS17 도입 후 재무 시스템 통합이 더 까다로워진 영향. - 양사 통합 시 25년 9월 말 기준 자산 55조원으로 NH농협생명 53.8조원 및 KB라이프 35.8조원을 상회하며 신한라이프 60.2조원에 이은 5위 생보사로 자리매김하게 됨. - 우리금융은 자회사 통합에 앞서 동양생명 잔여지분 완전 인수를 검토 중. 이와 관련 공개매수와 주식교환 방식이 가능. - 회사 관계자는 이르면 26년 말이나 27년 초 합병 법인이 출범하고, 실질적 통합 작업은 28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두 생보사의 통합은 필수조건:** 동양생명과 ABL 생명 통합은 우리금융 입장에서 보험 자회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판단. 이는 양사의 자본력을 강화함을 물론, 성장성이 제한된 생보업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 **일차적 관건은 통합 소요 시간 단축:** 일차적 관건은 양사간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이라 판단. 양사 통합에 있어 일차적으로 공개매수, 이후 주식교환이 이뤄지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불가피. 결국,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물리적인 통합은 물론, 조직 내부적으로 통합 시기를 단축하고 빠르게 성장으로의 전환에 나서는 것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그룹 내의 시너지 창출이 또 다른 관건:** 통합 후 성장 속도 제고 과정에서 관건은 그룹 내의 시너지 창출. 동사는 우리금융의 판매 네트워크 등의 활용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속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다만, 이 과정에서 관건은 그룹 내의 시너지 및 그룹 자체 역량 강화. 즉, 단순히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금융 그룹에게 필요로 하는 상품 라인업의 구축 및 제공을 통한 고객 Lock-in 및 수익성 제고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
	(3/17) 홍콩 ELS 과징금 결론 4월로 -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사태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음. 이에 해당 최종 결론은 4월로 연기되게 되었음.	**불확실성은 한 달 연장:** 당초 금융위의 결론을 통해 길게 이어진 홍콩 ELS과징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했으나, 이는 한 달간 연장된 셈. **어려운 매크로 환경 하에서 부담 완화 기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이에 따른 고유가, 고환율 등은 국내 매크로 환경은 물론 은행들의 CET-1 비율 및 대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환경 하에서 조단위 과징금의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 즉, 향후 ELS 과징금 규모의 경감 부문이 불확실성 완화는 물론 은행들의 실적 및 유동성 공급 역량 제고에 관건이라는 관점에서 초점 필요.
	(3/18) 자영업자 대환대출 개시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18일부터 모바일 앱으로 가능해지면서 은행들간 경쟁이 시작. - 카카오뱅크는 동사 상품으로 대환 시 최대 0.6%p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및 카카오뱅크 비즈니스 현대카드 이용 고객은 추가로 0.4%p의 우대금리 혜택도 가능.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3%대 수준. -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대환은 물론 은행권 유일 100% 비대면 자체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도 제공. 해당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3.24%로 기존 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 - 시중은행들도 우대금리 제고 등 서비스 제공 시작.	**인터넷은행이 보다 공격적:** 시중은행대비 인터넷은행들의 상품이 한도 및 우대금리 할인 폭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시중은행들의 경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한도가 1억원으로 인터넷은행보다 낮고, 우대금리도 KB가 0.3%p로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인터넷은행들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시중은행들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간의 균형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도 또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가계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의 기억 – 인터넷은행의 적극적인 점유율 확대:** 과거 가계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당시 인터넷은행들은 높은 한도 및 우대금리를 무기로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던 바 있음. 물론, 이후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이는 한시적 현상에 그쳤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의 부동산 대출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보다 초점 필요. **다만, 향후 관건은 보증서 대출 및 담보대출로의 확대:**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낮고 리스크는 높다는 점에서 향후 보증서 및 담보대출로의 대환대출 대상 확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3/19) LTV담합 과징금에 은행 행정소송** - 4대 시중은행이 공정위의 LTV 담합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대응. 과징금 규모는 총 2,720억원. - 은행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LTV를 높여야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LTV 하향으로 부당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	**제한적 정보 환경 하에서의 딜레마:** 지난 5년여 간의 기간 중 은행 영업행태에서 최대 변화는 비대면 여수신. 특히, 모바일을 통한 담보대출 실행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안. 더 나아가, 현재 은행들은 SOHO대출의 대환대출 플랫폼도 시행을 추진 중. 하지만, 비대면 담보대출 상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담보 물건 가치 산정.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담보가치 산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독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유사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은 상품은 공정가치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와 같이 정보가 제한되는 환경 하에서 은행들은 자체 담보 가치 평가 후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 즉, 은행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 환경 하에서 시장이 원하는 대출을 제공하되, 이 과정에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한 셈. **은행의 리스크 관리 위한 보완 토대 고민 필요:**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는 분명 필요한 덕목. 이에 대한 실패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분담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 반대로, 과도한 리스크 관리로 인해 영업의 혁신이 후퇴되는 것도 지양 필요. 결국, 과거 신용카드 사태 후 신용평가사의 설립 등이 수반되었던 것과 같은 합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니즈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판단.
	(3/2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6%로 6bp m-m 상승 - 금감원이 발표한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5로 6bp m-m, 3bp y-y 상승. - 1월 중 신규연체는 2.8조원으로 12월 2.4조원대비 0.4조원 증가. 연체채권 정리는 1.3조원으로 12월 5.1조원대비 크게 감소. - 부문별로는 모든 부문에서 상승세를 시현.	**월별 변동성 vs 25년 중반 이후 하향안정화:** 통상적으로 1월은 연말 후 부실채권 정리 감소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하는 월별 변동성 효과가 나타남. 오히려 25년 중반 이후 연체율의 하향 안정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도 초점 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 안심하기는 이르다:** 다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매크로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차주의 연체가 쉽게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도 리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 **다만, 올해 점진적 CCR 하향안정화 기대 - 핵심은 비은행:** 다만, 올해 은행권의 CCR은 점진적 하향 안정화를 기대. 지난 해 은행들의 연결 기준 충당금 적립액의 절반 이상은 비은행 계열사의 부동산 금융 관련 충당금 적립에 기인. 즉, 해당 부문의 부담 완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초점이 필요.
증권	**(3/18) 금융위, 자본시장 체질개선 2단계 발표 - 코스닥 승강제·대형IB 모험자본 의무화·저PBR 공표제** - 3/18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코스닥을 '프리미엄'·'스탠다드' 2개 세그먼트로 분리, 연내 승강제 도입 공식화 - 프리미엄 시장에는 170개 이내 우량 혁신기업 편입, 분기 평가로 강등·승격 가능한 구조 - 7개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 강화(2028년까지 신규 20조원 이상). 저PBR 기업 공표제·중복상장 원칙 금지·주식 결제일 단축 등 밸류업 방안도 포함.	**증시 저변 확대 의지 재확인:** 코스닥 승강제 → 우량 종목 ETF 출시 → 기관 자금 유입 및 거래대금 증가 긍정적. 대형IB 모험자본 의무화는 IMA·발행어음 기반 비이자이익 확대의 구조적 동인. 다만 자본 소요는 개별사 주주환원 여력 관점에서 모니터링 필요.
	(3/16) 5대 증권사 1Q26 합산 영업익 3조원 전망 - 거래대금 전년비 66%↑, 역대 최대 수준 - 3/16 기준 5대 대형사(미래에셋·한투·삼성·NH·키움)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 약 3조 279억원 - 일평균 거래대금 최대 79.5조원(3/4일)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 급증 - 미래에셋증권은 전년 대비 180% 이상 영업이익 증가 예상, 4사도 연간 순이익 '1조 클럽' 달성 유력."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시화 - 4~5월 실적 시즌이 주가 재반등 트리거:**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거래대금이 구조적으로 레벨업된 점은 증권업종의 핵심 성장 근거. 현 조정 국면은 실적 기대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구간. 단,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거래대금 위축 지속 여부는 2분기 실적 모멘텀 관점에서 주시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3/19) 코스닥 승강제 세부안 공개 – 중복상장 금지·M&A 공시 강화·결제일 단축 포함** - 3/18~19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2단계에는 코스닥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3단 세그먼트 도입 외 중복상장 원칙 금지, M&A 공시 강화 포함 - 저PBR 기업 공표제(거래소 홈페이지 상시 공표, 종목명 태그 부여) 도입 - 9월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계획. 주식 결제일 T+2→ 단축 방안도 검토 중.	**증권사 IB·ECM 수익 기반 확대 – IPO 질 향상 및 M&A 시장 활성화 수혜 기대:** 전반적으로 증시 부양 정책 일관성이 확인되는 구간으로 긍정적 관점 유지 타당. 다만, 부실기업 퇴출 가속화(50개→150개사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 수반 가능. 한편, 결제일 단축 또한 단기적으로는 거래시간 증가와 더불어 증권사 인프라 비용 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 있음.
보험	**(3/19) 5세대 실손보험 4월 출시 확정 – 4세대 막차 가입 경쟁 가열, 세대 전환율이 제도 성패 관건** - 3/19 금감원이 보험감독업무 설명회에서 5세대 실손 4월 출시 공식화 - 5세대는 비급여 비중증 항목 본인부담률 50%로 상향, 보험료 4세대 대비 30~50% 인하 - 현재 2·3세대 가입자 중심 4세대 전환 마케팅 확산.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이달 말까지 4세대 전환 시 갱신 시점 연장 가능.	**중장기 손해율 개선 기대 vs 단기 불확실성 상존:** 세대 전환 속도 및 신상품 손해율 안착 여부에 따라 보험사 실적 차별화 예상. 다만, 4세대 실손에서 사례에서 나타나듯, 상품 출시 초기 요율 조정 제한 등으로 유의미한 손해율 개선은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 한편, 제도 관점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 축소에 대한 소비자 및 의료계 반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관계자 조율이 제도 정착의 핵심 변수.
	(3/16) 환율 급등 속 금감원, 보험사 달러보험 불완전판매 긴급 점검 – 달러보험 신계약 1년 새 3배 폭증 -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속 금감원이 3/16 보험사 임원 소집, 달러보험 판매 실태 긴급 점검 - 달러보험 신계약 건수 1년 새 약 3배 폭증(4만→11만 7천건) - 금감원은 환차익만 강조하며 환율 하락 시 원금 손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가능성 집중 점검. 보험사들은 마케팅 자제 및 자체 점검 착수.	**보험사 외화 투자 수익 악화 가능성 + 불완전판매 리스크 점검 필요:**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이는 환헤지 비용(스왑 코스트) 상승으로 신규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압박, 특히 외화자산 비중 높은 생보사 부담. 불완전판매 이슈 본격화 시 자율배상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다만 100% 환헤지 원칙 유지로 평가손익 변동성은 제한적. 핵심 영향은 헤지비용 상승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에 집중 전망.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3-23 (월)		미국 2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미국 1월 건설지출
2026-03-24 (화)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4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확정치
		미국 3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미국 3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3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독일 3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영국 3월 CIPS / S&P 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일본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3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예비치
2026-03-25 (수)	1월 인구동향	미국 2월 수출입물가지수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4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	미국 4분기 경상수지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5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3월 IFO 기업환경지수
		영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2026-03-26 (목)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3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7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4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총회 협의회
		일본 1월 경기동향지수(수정치)
2026-03-27 (금)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2월 총통화(M3) 공급
		영국 3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2월 소매판매
		중국 2월 공업이익
		중국 4분기 경상수지(확정치)

자료: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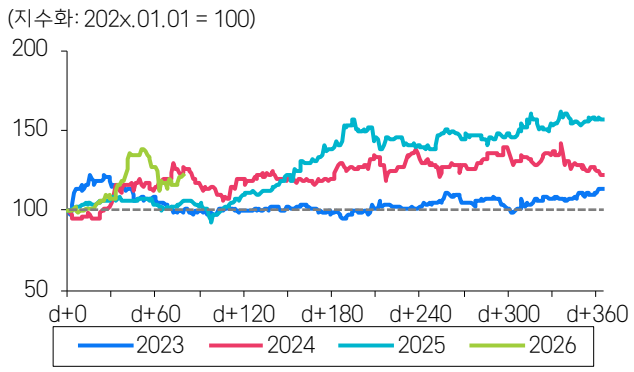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619.7	5,781.2						5.4%	5.0%	119.2%	37.2%
	KRX은행	206.9	1,589.7						5.0%	(9.3%)	80.9%	21.9%
	KRX증권	98.0	2,774.6						4.7%	4.1%	242.4%	81.4%
	KRX보험	101.5	3,370.0						5.0%	0.8%	79.4%	25.9%
	결제 지수**	1.568	n/a						2.5%	(3.0%)	72.7%	19.5%
은행	KB금융	57.9	155,200	57.9	0.9	11.1	8.6	11.9	4.2%	(7.6%)	88.6%	24.5%
	신한지주	46.5	97,900	54.4	0.8	10.3	8.4	14.9	7.8%	(4.5%)	105.9%	27.3%
	하나금융지주	31.5	113,200	50.1	0.7	10.5	7.0	11.7	3.9%	(11.3%)	82.0%	20.3%
	우리금융지주	24.9	33,900	42.2	0.7	10.3	7.3	9.3	5.3%	(13.0%)	102.6%	21.1%
	기업은행	19.2	24,100	35.5	0.6	8.9	7.2	5.3	4.3%	(7.8%)	52.7%	15.0%
	BNK금융지주	5.8	18,850	45.3	0.5	8.8	6.1	18.3	3.2%	(14.5%)	71.4%	18.8%
	JB금융지주	5.8	30,950	42.4	0.5	9.1	5.9	11.7	1.5%	(10.7%)	78.1%	20.7%
	iM금융지주	2.8	17,240	49.3	1.0	13.4	7.6	8.7	3.5%	(17.1%)	89.0%	10.9%
	카카오뱅크	12.0	25,100	50.0	1.6	7.8	21.9	14.0	5.2%	(8.4%)	8.9%	16.2%
증권	미래에셋증권	37.6	67,700	60.9	2.7	12.9	22.0	17.5	(2.2%)	10.4%	598.1%	191.2%
	NH투자증권	12.7	35,600	41.1	1.4	12.9	11.2	14.9	12.3%	15.2%	136.7%	68.7%
	한국금융지주	13.1	234,500	25.0	1.2	14.2	9.7	-19.1	6.8%	(8.9%)	206.1%	45.0%
	키움증권	12.5	460,500	29.5	1.6	20.7	9.0	26.4	7.3%	(1.9%)	255.9%	59.1%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8.6	110,100	50.0	1.7	22.8	8.2	14.9	(1.7%)	(19.2%)	(8.4%)	(2.7%)
	삼성화재	21.8	474,500	45.1	1.0	10.1	10.9	12.0	0.1%	(15.1%)	19.5%	(4.5%)
	삼성생명	46.3	231,500	46.3	0.6	3.7	15.9	17.8	7.2%	12.7%	170.1%	46.9%
	DB손해보험	13.0	186,700	32.3	1.1	16.6	6.6	9.0	5.3%	2.5%	91.5%	42.4%
	한화생명	4.5	5,230	16.4	0.3	5.6	6.3	37.8	9.6%	8.3%	95.5%	60.7%
	현대해상	2.8	31,300	11.7	0.5	17.5	3.3	18.3	5.0%	(11.7%)	35.8%	1.6%
결제	카카오페이	8.7	64,300	n/a	n/a	5.6	86.5	57.5	10.5%	2.9%	100.9%	31.0%
	NHN KCP	0.8	20,300	n/a	n/a	17.2	14.6	16.1	3.6%	(2.6%)	147.3%	36.2%
	KG이니시스	0.3	10,640	n/a	n/a	7.5	4.9	5.5	1.6%	(6.4%)	23.3%	4.1%
	KG모빌리언스	0.2	5,040	n/a	n/a	10.7	4.9	8.1	0.8%	(7.5%)	20.3%	7.2%
	나이스정보통신	0.3	26,800	n/a	n/a	9.2	5.6	29.7	1.5%	3.7%	50.5%	5.7%

참고: 3/20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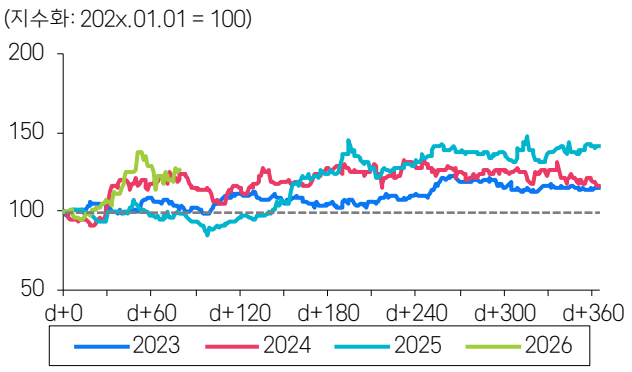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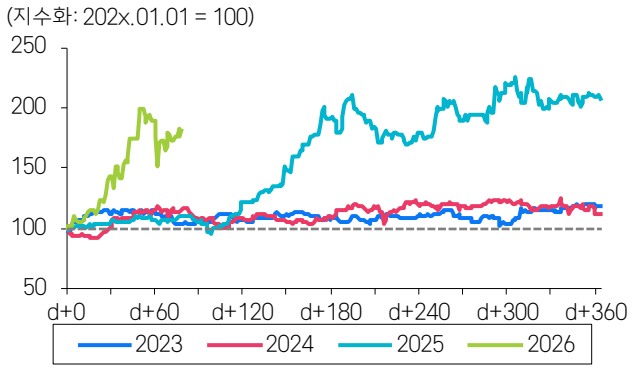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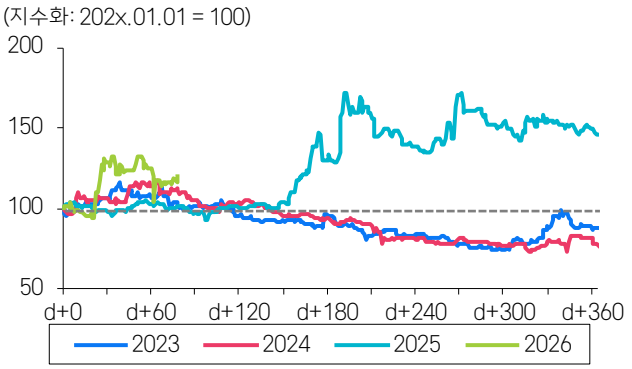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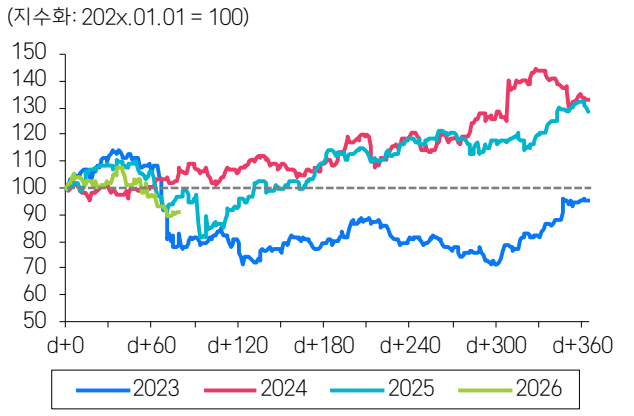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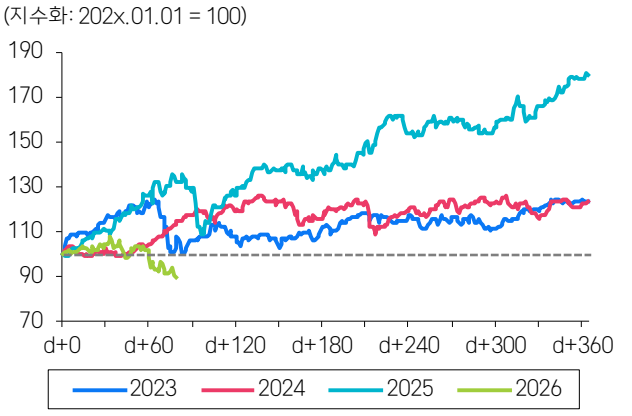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772.9	84.1	2.1	16.4	13.3	7.9	1.1	(7.8)	18.6	(11.1)
		Bank of America	338.5	98.5	1.2	11.3	10.9	12.3	0.9	(11.1)	11.0	(14.3)
		Citigroup	191.6	120.1	0.9	9.2	10.7	46.8	3.6	(5.6)	52.2	(6.1)
		Wells Fargo	239.4	97.5	1.4	12.7	11.1	12.0	4.7	(12.5)	7.0	(16.7)
		PNC Financial	81.4	67.0	1.3	12.8	11.1	9.3	0.3	(13.4)	16.2	(3.4)
	유럽	Banco Santander	157.0	62.7	1.3	13.5	8.8	9.4	(3.1)	(15.4)	43.6	(8.2)
		Unicredit	103.9	84.4	1.3	16.5	8.0	5.7	(6.1)	(19.1)	11.9	(15.9)
		BBVA	118.3	86.6	1.7	19.3	8.8	15.5	(0.5)	(10.6)	37.1	(10.6)
		ING Group	74.0	82.6	1.2	12.8	9.6	5.5	(2.5)	(12.4)	20.3	(8.0)
		Lloyds	71.1	82.3	1.2	13.8	10.2	42.2	(3.6)	(12.8)	28.6	(7.6)
		Barclays	68.7	62.5	0.7	10.7	9.1	21.3	(3.2)	(21.1)	25.7	(21.4)
	일본	Mitsubishi UFJ FG	200.2	61.1	1.4	10.7	13.8	21.7	1.1	(8.7)	20.7	7.7
		Sumitomo Mitsui FG	123.9	54.3	1.3	10.7	12.5	36.7	0.9	(13.5)	24.9	2.3
		Mizuho FG	96.2	68.3	1.4	11.0	12.9	36.3	0.2	(14.3)	37.6	7.9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66.0	29.9*	0.6	9.3	6.6	1.9	4.3	0.6	18.5	4.9
		China Construction Bank	276.7	29.9*	0.6	9.9	6.3	(2.0)	2.1	(1.6)	17.6	5.1
		Agricultural Bank of China	333.7	29.9*	0.7	10.0	6.8	4.5	4.7	(3.2)	8.9	(7.1)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37.0	N/A	1.4	6.0	22.9	(32.5)	(1.9)	(3.5)	(7.8)	(4.5)
		AIG	39.9	76.3	0.9	10.1	9.7	흑전	(3.1)	(7.5)	(10.6)	(13.0)
		Travelers Insurance	64.1	77.7	1.8	17.7	10.9	(0.6)	(1.9)	(2.7)	15.5	2.3
	유럽	Allianz	152.9	80.8	2.1	18.5	11.5	9.7	(1.8)	(8.2)	(1.1)	(11.0)
		AXA	91.1	59.1*	1.6	17.0	9.1	(8.6)	(1.6)	(5.3)	(4.6)	(8.0)
		Generalli	59.7	58.6*	1.5	14.1	10.9	10.8	(2.5)	(7.2)	2.6	(6.7)
	일본	Tokio Marine	73.3	41*	2.2	20.1	11.3	(1.8)	2.2	(6.8)	0.8	3.7
		Daiichi Life Insurance	32.5	56.2	1.3	12.2	12.2	(1.0)	(1.5)	(10.4)	22.0	7.4
	중국	Ping An Insurance	151.0	35.1*	1.1	14.0	7.8	11.2	(0.8)	(15.2)	29.3	(5.2)
		China Life Insurance	152.6	15.5*	1.3	28.6	4.8	53.8	0.3	(18.6)	77.1	2.8
		PICC P&C Insurance	43.2	34.1*	1.2	16.4	7.4	41.5	(3.2)	(10.0)	3.5	(6.9)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49.4	98.2	2.2	16.2	13.9	13.8	4.0	(11.8)	44.0	(7.4)
		Morgan Stanley	256.4	72.0	2.3	16.9	14.2	11.0	4.3	(7.9)	34.4	(9.0)
		Charles Schwab	170.7	98.3	3.4	21.8	16.6	22.6	1.7	0.7	20.8	(5.3)
		Robinhood	63.9	39.4	5.7	21.8	29.0	19.3	(3.4)	(6.9)	59.8	(37.3)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02.9	82.5	5.8	34.9	16.8	14.4	(1.5)	(14.6)	9.2	(20.1)
결제	미국	VISA	588.8	21.7*	14.3	60.2	23.9	24.0	(1.8)	(6.0)	(10.1)	(14.0)
		MasterCard	442.7	17.6*	40.4	192.3	25.7	16.7	(0.3)	(5.7)	(7.3)	(13.1)
		PayPal	40.5	5.2*	1.8	23.1	8.5	(4.2)	(2.0)	5.7	(37.3)	(24.6)
	유럽	Adyen	31.5	0*	4.2	21.4	21.9	17.2	(5.5)	(8.8)	(43.8)	(37.2)
핀테크	미국	Block	35.6	0*	1.5	9.8	18.5	52.6	(0.7)	11.6	(2.8)	(8.8)
		Upstart	2.5	0*	2.8	20.3	25.1	130.3	(1.4)	(11.3)	(50.0)	(40.6)
		Affirm	14.6	0*	3.7	10.6	39.9	632.5	(6.5)	(14.2)	(12.2)	(41.1)
	중국	LuFax	2.4	N/A	N/A	#N/A	N/A	흑전	0.0	0.0	0.0	0.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3/20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